

주변부 그리기를 통한 서구 근대성 비판으로서의 『야만스러운 탐정들』

이 경 민
서울대학교

이경민(2014), 주변부 그리기를 통한 서구 근대성 비판으로서의 『야만스러운 탐정들』.

초 록 『먼 별』, 『칠레의 밤』, 『2666』 등의 작품에서 명쾌하게 드러나듯, 로베르토 볼라뇨는 자신의 문학 전반에서 끊임없이 현대사회의 악을 추적한 작가이다. 볼라뇨가 그러한 문학을 추구한데는 근대성의 어두운 이면으로서의 식민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변부 작가들의 삶과 모험을 다루며 (문학)세계의 사회적 병리를 과감하게 파고드는 『야만스러운 탐정들』 또한 그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하는 작품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볼라뇨가 『야만스러운 탐정들』을 통해 멕시코혁명 이후의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상호 기생적 관계를 폭로함과 동시에 멕시코 지식인 사회가 유럽중심주의적 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그러한 지식의 종속성이 멕시코 사회 내부에 중심-주변 구조를 구축, 강화, 재생산했음을 비판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볼라뇨가 멕시코 지식(인) 세계의 역사적 컨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서구 근대성의 본질적 특성을 식민적 야만성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야만성으로 인해 역사에서 배제된 주변부가 또 다른 삶-텍스트에 대한 불확정적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핵심어 권력, 근대성, 주변부, 지식, 식민성, 『야만스러운 탐정들』

1. 들어가며

로베르토 볼라뇨(Roberto Bolaño)의 『야만스러운 탐정들 *Los detectives salvajes*』(1998)¹⁾은 프랙탈, 메타텍스트성, 리즘성, 다성성, 다중접속성, 탈중심성 등의 용어를 획득할 만큼 독특하게 구성된 작품이다. 그 서사적 독특함으로 인해 이 작품은 조이스나 라블레의 글쓰기를 비롯해 꼬르따사르(Julio Cortázar)의 『팔방놀이 *Rayuela*』(1963)나 마레찰(Leopoldo Marechal)의 『아단 부에노스아이레스 *Adán Buenosayres*』(1948) 등과 비견되며 ‘반소설(antinovela)’ 혹은 ‘대항소설(contranovela)’로 평가(Edwards 1999)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기존의 용어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작품 자체가 분류를 찾는”(Kokaly Tapia 2005, 258) 문학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볼라뇨의 문학적 도전은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기성 작가들의 거대서사(Macronarrativa)와 그들이 구축한 라틴아메리카 문학성에서 탈주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탈주 방식은 기성 작가들에 의해 고착된 라틴아메리카성을 탈피하며 탈(脫)라틴아메리카성 혹은 서구적 세계주의를 표방한 크랙(EI Crack)이나 맥폰도(McOndo) 세대의 작가들과 차별화된다. 볼라뇨가 국가와 대륙의 경계를 넘나들며 지역적 영토성에 구속되지 않는 탈라틴아메리카적 글쓰기를 선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동시에 철저하고 집요하게 라틴아메리카에 천착하며 기성 작가들에 의해 발명되고 신화화된 라틴

1)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자전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중심인물인 벨라노(Arturo Belano)와 리마(Ulises Lima)는 각각 볼라뇨 자신과 밀바다사실주의(infrarrealismo)를 함께 했던 마리오 산피아고 빠빠스키아로(Mario Santiago Papasquiaro)의 분신(Alter ego)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탐정소설과 모험소설의 요소들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작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와 3부는 197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어지는 가르시아 마데로(García Madero)의 일기로, 내장사실주의 시인인 벨라노와 리마와의 조우와 1920년대에 활동하고 사라진 내장사실주의 창시자 세사레아 티나헤로(Cesárea Tinajero)를 찾는 모험, 그리고 그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2부는 1976년부터 1996년까지 52명에 이르는 다양한 서술자-인물들의 산발적인 증언으로 이뤄져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에서 방랑하듯 살아가는 벨라노와 리마의 비밀스러운 행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아메리카를 벗겨내고 ‘벌거벗은 라틴아메리카’를 그려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의 문학은 ‘마술’, ‘환상’, ‘경이’ 등의 용어로 영토화된 라틴아메리카 문학의 외장을 걷어내고 현실적 라틴아메리카의 ‘내장(visceral)’을 파고드는 문학으로 라틴아메리카 문학에 대한 인식 지평을 탈-재영토화한다.

그 도전적 노정에서 볼라노는 라틴아메리카의 주변부 현실을 그려냄으로써 (문학)세계 질서의 중심부로 인식된 서구가 야기한 혹은 은폐한 악의 세계를 파헤친다. 따라서 볼라노 작품의 세계주의적 성격은 그의 서사적 발화 위치가 언제나 주변부에 있었으며 주변부(인)에 대한 글쓰기에 몰두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이주주체의 ‘밑바닥(infra)’ 현실을 관통하는 세계주의라고 할 수 있다. 세계질서의 중심부적 위치에서 획일적 척도로 조망한 ‘정주(定住)적’ 세계주의가 아니라 (비)물리적 경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는 주변부(인)의 세계주의인 것이다. 주지할 점은 그러한 볼라노의 세계주의가 서구 근대성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를 이해하고 설정하는 방식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럽의 정신병원이다. 아마도 처음엔 라틴아메리카가 유럽의 병원이나 곡식창고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신병원이 됐다. 빈곤하고 폭력적이며 야만적인 정신병원 말이다. 혼돈과 부패가 난무하는 그곳을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면 루브르박물관의 그림자가 보일 것이다.
(Braithwaite 2006, 111)

볼라노는 식민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라틴아메리카와 유럽의 역사적 관계를 명쾌하게 정리하면서 루브르박물관으로 상징, 수렴되는 서구 근대성의 본질적 조건으로서의 식민성, 다시 말해 근대성이 “식민성을 필요로 하고 생산하는 것”(미놀로 2010, 50)임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럽의 곡식창고에서 정신병원으로의 전이과정은 유럽의 신대륙 진출과 정복으로 실현된 서구 식민주의의 물적 기반으로서의 라틴아메리카와 자본주의 안착과 계몽주의를 거치며 지식의 식민화가 진행된 식민 메커니즘의 역사적 프로세스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볼라노의 문학이 라틴아메리카의 악(빈곤, 폭력, 혼돈, 부패 등)을 추적한다면, 그것은 루브르박물관의 그림자, 즉 근대성/식민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문학적 성공을 거두며 다양한 시각의 분석과 연구가 진행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형상화한 현대사회의 초상에 대해 근대성/식민성의 문제에서 출발한 연구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몇 가지 지점에서 근대성/식민성과 관련한 볼라노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작품임은 분명하다. 먼저, 볼라노는 1920년대 멕시코 전위주의인 반골주의(Estridentismo)를 문학적으로 재현하면서 멕시코 지식인 사회에 침투한 유럽중심주의적 사유와 그러한 지식의 종속성이 형성한 현대 멕시코 사회의 중심-주변 구조의 초상을 명확히 그려내고 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이 참여했던 밑바닥사실주의(Infrarrealismo)를 허구화한 전위적 내장사실주의(Realismo Visceral) 문학 운동을 통해 멕시코 사회에 내재한 또 다른 가능성으로서의 주변부를 제시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지점을 중심으로 볼라노가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라틴아메리카와 근대성/식민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유럽중심주의적 사유와 지식의 종속화

볼라노의 문학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의식은 현대 사회 내의 작가(지식인), 문학(지식), 권력(폭력)의 위치와 이들의 관계, 즉 그것들의 사회·정치적 배치와 그들 사이에 작동하는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으로 함축될 수 있다. 작가와 문학을 통해 문화적 파시즘을 조명한 『아메리카의 나치문학 *Literatura nazi en América*』(1996), 문학과 권력의 상호기생적 관계를 파헤친 『칠레의 밤 *Nocturno de Chile*』(2000), 권력의 폭력성과 문학의 생명성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부적 *Amuleto*』(1999), 문학에 대한 정치권력의 폭력성을 그려낸 『팽선생 *Monsieur Pain*』(1999), 그리고 문학-권력-글로벌 자본주의 세계의 악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한 메가소설 『2666』(2004)에 이르기까지 볼라노는 문학적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 혹은 모든 것이 자본주의 세속화에 함몰된 시대의 문학-권력을 비판함으로써 (문학)세계를 재조명한다. 『야만스러운 탐정들』 또한 문학(문화)권력의 상징적 중심으로 옥파비오 빠스(Octavio Paz)를 상징하고 이

를 제거하려는 일군의 대항문화(Contracultura) 운동을 그려낸다는 점에서 문학-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작품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 작품에서 살피야 할 것은 볼라노가 멕시코혁명 이후 1920년대 전위주의 문학운동을 이끌던 작가-지식인들의 사회·문화적 컨텍스트 속에서 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력에 접근, 결탁하여 권력과 상보적 관계를 획득하는지, 그리고 헤게모니 집단 혹은 정치권력이 지배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문학(문화)을 정치적 도구로 전유하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이다.²⁾

문학과 권력이 일종의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볼라노는 1920년대 멕시코 전위주의 문학운동인 반골주의³⁾를 끌어들인다. 멕시코 역사에 있어 이 시기를 1910년 멕시코혁명 이후 권력투쟁의 장에서 1917년 헌법 제정을 기점으로 대중적 요구를 수용하는 장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고려한다면,⁴⁾ 반골주의는 혁명과 국가 재건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명분,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참여의 임무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마쁠레스 아르세(Manuel Maples Arce, 1900-1981)가 볼라노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반골주의의 목적을 “혁명 이데올로기, 문학, 조형예술, 문화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표명을 끌어안을 수 있는 완전한 혁명”(Bolaño 1976, 55)을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혁명의 조류에서 문화의 위치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

-
- 2) 그런 점에서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식민시대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문자(지식)와 권력의 협력관계에 대한 앙헬 라마(1984)의 비판적 관점과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석균(2010)은 볼라노가 문학권력으로서의 ‘문자도시’를 파괴함으로써 문학을 수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 3) 전위주의 문학운동으로서 반골주의는 1921년 12월 마쁠레스 아르세가 『현재 제1호 Actual No. 1』라는 잡지에 선언문을 실음으로써 시작된다. 참고로 볼라노는 칠레에서 돌아온 후 1920년대 전위주의 문학에 심취하여 아르켈레스 벨라(Arqueles Vela), 마쁠레스 아르세, 리스트 아르수비데(List Arzubide) 등의 작가와 인터뷰를 했으며 1976년 『Plural』 62호에 『Tres estridentistas en 1976』라는 글을 실은 바 있다.
- 4) 멕시코혁명을 1910년에서 194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건으로 파악한다면, 1910년에서 1920년을 각 지방 실력자들이 대중동원과 무장투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는 상쟁의 단계로, 1920년대 이후를 혁명세력이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를 선택적으로 포섭하면서 이른바 ‘혁명가족’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안정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구병 2005, 77).

이라 할 것이다.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볼라뇨가 멕시코혁명과 반골주의를 기점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볼라뇨는 지배 헤게모니를 전복한 정치적 혁명과 반역적 전위주의 예술이(마뻬레스 아르세의 언급처럼) “완전한 혁명”을 기획하고 완성한 것이 아니라 지배 헤게모니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적-예술적 혁명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볼라뇨가 주시하는 것은 미학적, 예술적 범주 내에서의 문학이 아니라 혁명 권력에 결합한 지식인의 인식론적 관점과 태도, 그리고 양자의 영합이 지향하는 정치적, 문화적 기획과 방향이다. 먼저,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마뻬레스 아르세는 멕시코 최초의 전위주의 주창자라는 문학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공을 위해 문학을 도구로 활용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반골주의 선언문에서 지식인과 예술인이 제도권 문화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자치적 문화 생성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의 출발점은 예술의 혁명적 독립이다. 다음은 볼라뇨가 마뻬레스 아르세가 「현재 제1호 Actual 1」에 발표한 실제 선언문을 『야만스러운 탐정들』에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다.

성공하라(Exito[sic]). 멕시코의 모든 청년 시인, 화가, 조각가에게, 미관말적 의하잘 것 없는 녹색에 아직 현혹되지 않은 이들에게, 제도권 비평의 저열한 예찬과 천박하고 욕정에 사로잡힌 대중의 박수갈채에 아직 썩지 않은 이들에게, 엔리께 곤살레스 마르띠네스의 연회 음식을 훔아먹지 않은 이들에게, 지적 생리의 핏방울로 예술을 할 것을.(Bolaño 1998, 217)⁵⁾

이 선언문에서 마뻬레스 아르세는 당대 공식문화를 대변하는 인물인 곤살레스 마르띠네스를 (Enrique González Martínez)에 대항하여 자치적 문화 공간을 옹호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요구한다(Exijo)”(217)의 잘못된 표기인 “성공하라(Exito)”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으로 해석될 빌미를 제공하며 선언문의 내적 모순을 보여준다. 볼라뇨는 그 모순성을 마뻬레스 아르세의 세

5) 앞으로 『야만스러운 탐정들』이 인용될 경우, 페이지만 표시한다.

속적 행보에 대비하며 그를 신랄하게 조롱하는데 활용한다. 마블레스 아르세의 글이 “그 시절 멕시코혁명의 장군들을 사로잡는”(217) 수단으로 작용하여 디에고 까르바할(Diego Carvajal) 장군의 후원을 받게 되며⁶⁾ 마침내 제도권 인사로 변모하여 유럽으로 떠나는 것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정작 마블레스 아르세가 유럽으로 떠날 때, 신문에는 “반골주의의 아버지가 유럽에 간다든지 멕시코 최초의 전위주의 시인이 구대륙에 간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저 시인 마누엘 마블레스 아르세라고만 되어 있다. 아마도 시인이라는 말은 커녕 마블레스 아르세 학사가 [...] 로마 주재 멕시코대사관의 영사 혹은 부영사 혹은 문화담당관 직을 수행”(356)할 것이라고 발표된다. 이는 혁명으로 야기된 권력투쟁의 시기가 종결되자 수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혁명정부에 협력하면서 무지한 군부나 농민 지도자 혹은 권력층 까우디오의 공식적 혹은 비밀스러운 조언자가 됐던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옥파비오 빠스는 “멕시코의 인텔리겐차는 전체적으로 비평, 실험, 판단이라는 지성의 고유한 무기를 사용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 [...] 그들[유럽과 미국의 지식인들]의 기본적 임무가 비판이었다면, 멕시코 지식인들은 정치활동을 했다. [...] 멕시코의 인텔리겐차는 국가에 봉헌한 것도 모자라 국가를 변호”(Paz 2009, 303)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볼라뇨는 『2666』에서 국가와 지식인의 공생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전역이 그렇듯이, 멕시코의 지식인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 제도혁명당(PRI) 시절에도 국민행동당(PAN)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지식인은 국가를 열렬히 변호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다. 국가는 개의치 않는다. 국가는 지식인들을 먹여 살리며 비밀리에 그들을 감시한다. (Bolaño 2004, 161)

결과적으로 지식인은 혁명권력의 수호자이자 권력의 명령에 대한 수행자가 되며, 권력은 지식인의 비호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연유로 마블레스 아르세의

6) 디에고 까르바할의 실제 모델은 마블레스 아르세의 예술운동을 후원했던 군부 출신의 에리베르토 하라(Heriberto Jara, 1879-1968)이다.

일화를 증언하는 아마데오 살바티에라(Amadeo Salvatierra)는 “시인과 정치인은, 특히 그제 멕시코라면, 똑같은 한 부류”(355)라고 치부한다. 볼라노는 이런 방식으로 20세기 초 멕시코의 인텔리겐차(文)와 혁명권력(武)의 정략적 연합을 비판적으로 그려낸다.⁷⁾ 그렇다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지식·권력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양자의 공모관계를 대변하는 마בל레스 아르세와 디에고 까르바할 장군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다.

마누엘과 우리의 장군이신 디에고 까르바할은 파리에 대해, 파리에서 먹는 치즈를 곁들인 빵에 대해, 파리에서 마시는 떼킬라에 대해, 거짓말로 들릴 정도로 엄청난 주량에 대해, 벼룩시장 근처 파리 사람들의 엄청난 주량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당시에 나는 두 사람이 그 모든 일들을 구체적인 거리나 구역이 아니라 대충 그 일대에서 일어나는 일인 듯 말한다고 느껴졌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마누엘도 우리 장군님도 그때까지 “빛의 도시”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두 사람은 그 머나먼 도시, 예의 그 술 취한 도시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훌륭한 대의에나 어울릴 열정을 품고 있었다.(356)

두 인물의 대화는 문명의 시공간으로서의 유럽, 특히 “빛”(계몽주의)으로 상징되는 프랑스를 문화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가장 근대적이고 문화적인 영토의 유토피아적 모델로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בל레스 아르세에게 파리의 유행과 스타일은 멕시코라는 국민국가 내에서 지식인 집단의 문화적 우월성과 차별성을 담보하며 권력에 접근, 결합하는 수단이 되며, 까르바할 장군에게 파리 문화 수용은 “문맹”(355)이라는 지적 조건을 감추고 자신을 ‘(고급)문화의 수호자’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두 인물은 서구의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럽중심주의적 사유의 틀은 물론이고 자신을 서구인과 동일시함으로써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재)배치하려는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⁸⁾

7) 반면에 볼라노는 마בל레스 아르세와는 상반된 작가로 레inaldo 아레나스(Reinaldo Arenas)를 제시하는데, “혁명당국은 동성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용의가 없었다. [...] 혁명가들의 목적은 분명 두 가지였다. 그 쿠바 작가가 동성애에서 치유되는 것과 치유 후에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다”(499)라고 함으로써 반제국주의 혁명의 이면에 숨은 혁명 권력의 배타적 경직성을 비판한다.

8) 라틴아메리카의 근대 엘리트의 한계와 관련하여 로사다는 그들이 외적으로는 국가의

다시 말해, 두 인물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는 멕시코(라틴아메리카)의 전근대적 열등함 혹은 미성숙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스스로 멕시코를 유럽(중심)의 주변부로 배치하는 것, 즉 유럽의 척도 안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멕시코의 현실을 은폐하는 기저로 작동한다. 사무엘 라모스는 멕시코의 근대성이 서구(특히, 스페인과 프랑스)에 대한 모방과 동화에 있었음을 지적하며 멕시코혁명 시기에 지식인 사회의 유럽중심주의가 낳은 병폐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⁹⁾

멕시코인은 유럽문명의 원리에 기댄 채 창조적 작품은커녕 멕시코 정신을 진실로 신실하게 보여줄 자생적 작품을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개탄스러운 게 있다면, 그건 우리 선조들이 -아마도 '자발적 퇴화'의 결과로 인해- 장단점을 지닌 진술한 자신이 되지 못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사로 현실을 감춰버렸다는 것이다.(Ramos 1951, 27-28)

19세기 아메리카인의 삶에 앵글로색슨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인들이 과학, 예술, 철학, 문학을 통해 문화를 성취하려는 노력은 프랑스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 정신적 영향이 뽀르피리오 집권기에 최고조에 달하면서 교양인 층은 파리의 유행과 관습을 분별없이 따라했다. “과학자들”과 부유층에 속한 자들은 집을 지을 때 망사르 지붕을 올렸는데 눈이 오지 않는 멕시코에선 쓸모없는 것이었다. 교양인으로 인정받으려면 프랑스어 구사력이 필수였다.(Ramos 1951, 48-49)

따라서 마블레스 아르세와 가르바할 장군의 인식 지평은 “근대 세계체제의 포괄적 상상계일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르네상스 초기 선교사들에서 계몽주의 철학자들까지) 지식을 종속시키기(subalternizing) 위한 강력한 기계이자 글로벌한 인식론적 기준의 설정”(미놀로 2013, 109-110)이기도 한 옥시덴탈

사회구조를 재편하지 못한 채 시장과 국제적 자본에 의존적이었으며 내적으로는 식민의 봉건적 규범을 따른 견고한 사회구조를 강화했다고 지적한다(Losada 1997, 358).

- 9) 라모스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유럽문화의 절대 우위가 무너졌으며 ‘유색인종’(혼혈)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유럽중심주의적 사유에서 진일보한 관점을 보이기도 하지만 “멕시코에서 프랑스 사상이 즉각적으로 수용된 이유가 프랑스가 라틴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Ramos 1951, 44)고 판단함으로써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구상으로 탄생한 라틴성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리즘에 포섭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마블레스 아르세가 까르바할 장군의 후원을 받아 할라빠(Jalapa)에 건설하고자 기획한 유토피아적 도시인 “에스뜨리덴토포폴리스(Estridentopolis)”(355)¹⁰⁾는 서구의 주변부인 멕시코 내에 서구 근대성을 이식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문제는 지식의 종속화로 인한 서구 근대성 수용-이식의 과정이 지적 식민성을 자기 내부로 함께 이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라틴아메리카가 식민지 본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유럽 혈통의 크리올이 남북 아메리카에서 원주민과 흑인을 대상으로 식민성의 논리를 재생산(미놀로 2010, 100)했다면, 볼라노가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멕시코혁명의 지식인을 포착한 것은 ‘혁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멕시코혁명이 “서구로부터 수입된 텍스트에 의해 억압되었던 컨텍스트의 저항”(김은중 2009, 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컨텍스트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또 다시 수입된 텍스트로 돌아감으로써 식민성 논리의 내면화가 지속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그런 점에서 마블레스 아르세가 “모든 시인들은, 제 아무리 전위적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177)고 주장할 때, 그 아버지는 텍스트 생산의 모형으로서 서구-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서사, 즉 광의의 의미에서 서구 근대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라노는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지식-권력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멕시코가 19세기에 서 20세기 초까지 독립, 국가형성기, 혁명을 거치면서 외적식민주의에서는 벗어났지만 유럽중심적 사유를 지속적으로 이식함으로 인해 지식의 종속성/식

10) 실제로 이 용어는 반골주의 작가들이 1925년에서 1927년까지 할라빠에 머물던 시기에 사용한 용어이다. 에스뜨리덴토포폴리스라는 용어의 어원은 바스콘셀로스가 『보편인종 *La raza cósmica*』(1925)에서 제시한 유니베르소폴리스(Universopolis)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1) 끼하노는 라틴아메리카의 실질적인 민주주의혁명을 멕시코와 볼리비아의 혁명으로 보고 그 혁명이 민중적, 민족주의적, 반제국주의적, 반식민주의적이었으며 권력의 식민성과 과두제에 반하는 것이었고, 제국 부르주아의 보호 하에 있던 영주적 부르주아에 의한 국가 통제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판단한다.(Quijano 2003, 240) 반면에 볼라노는 멕시코혁명 이후 지식인이 민중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지배엘리트에 결합하는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새로운 권력 메커니즘의 생산을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한다.

민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멕시코에 내면화된 중심-주변부 구조

볼라노는 문학계와 국가는 물론이고 문학에서도 삶에서도 특정한 경계 내 위치 점유를 거부한 작가로, 거대서사, 정전 문학, 중심 담론에 저항하며 탈중심적 전복 문학을 시도했던 주변부 작가였다. 그의 전복적 서사는 (문학)세계의 중심부를 비판하기 위해 주변부를 전면에 드러내는 것으로 실현됐다. “공식 역사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름 없는 주변부적 존재들과 사회적 열패자들, 즉 “역사 없는 사람들(*las gentes sin Historia*)”을 새로운 세계 건설의 주제로 복권시키는”(김현균 2010, 44) 그의 작업들은 『부적』, 『야만스러운 탐정들』, 『2666』 등의 작품을 비롯해 그의 문학 전반에 흩뿌려져 있다. 특히, 볼라노의 자전적 경험이 바탕이 된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포스트식민 엘리트 집단의 유럽중심주의적 사유가 20세기 멕시코 사회에 중심-주변이라는 사회문화적 계서구조를 조장하고 이식-내면화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야만적인(*salvajes*)’, 즉 ‘훈육되지 않은’ 혹은 ‘훈육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주변부 세계를 조망한 작품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독립이 외적 식민주의의 종식이었지만, 크리올 엘리트가 유럽의 식민 지배자들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인해 외적 식민주의가 내적 식민주의로, 다시 말해 ‘종속’이 재배치되었다면(미놀로 2010, 129), 볼라노는 문명, 진보, 발전이라는 서구 근대성의 수사가 국민국가로서의 멕시코에 내면화되면서 야기한 서열적이고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문제 삼으며 주변부 혹은 내적 외부성(타자성)을 파고드는 것이다.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1970년대 멕시코를 배경으로 대항문화로서 내장사실주의라는 반역적 시문학 운동을 벌인 일군의 우상파괴주의적 청년 시인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작품에서 내장사실주의 문학운동의 중심인물인 벨라노와 리마는 멕시코의 지식-문화 영토를 옥파비오 빠스로 상징되는 공식적, 제도적 영토와 세사레아 떠나헤로로 대변되는 대항문화 영토로 분리하고 서열적 문학

(권력)을 전복하기 위한 문학 혁명을 주장한다.¹²⁾ 옥파비오 빠스가 멕시코의 문화영토를 중심에 위치한 이유는 그가 “뻬따뻬디아(pentapodia)”, “니까르께오(nicárqueo)”, “테뜨라스티꼬(tetrástico)” 등의 시작법(詩作法)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시인”(14)이며 멕시코의 “유일한 노벨상 수장자”(605)이기 때문이다. 즉, 옥파비오 빠스가 지닌 문학(문화)적 권위는 서구의 고전적 문학 전통에 정통하다는 사실과 유럽의 문화적 가치 척도에 부합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한 문학계 현실 속에서 내장사실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위치를 “옥파비오 빠스의 제국과 네루다의 제국 사이”에서 “목전에 칼이 들어온”(30) 상황으로 파악하고 빠스를 “적”(14)으로 규정하게 된다.¹³⁾ 나아가 그들은 내장사실주의 창시자의 문학을 대항적 시학 혹은 대안담론으로 상정하게 된다. 옥파비오 빠스의 영토에 맞서기 위해 반골주의가 출현한 1920년대의 또 다른 전위주의인 내장사실주의를 주창하고 주변부-소노라(Sonora)로 자취를 감춘 피나헤로를 이상향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피나헤로의 문화적, 사회적, 지정학적 위치와 영토성은 빠스의 그것과 대칭적 관계를 형성한다.

<u>옥파비오 빠스의 영토성</u>	<u>세사레아 피나헤로의 영토성</u>
정주성과 질서	유목성과 무질서
메트로폴리탄-중심부-아버지	사막-주변부-어머니
문명과 빛	야만성과 그림자
수직적 서열성	수평적 개방성

(이경민 2012, 35)

12)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1970년대 중반 볼라노가 전개한 밀바다사실주의 운동을 투영하고 있다. 대항문화로서 밀바다사실주의가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과정은 이경민(2013)을 참조하라.

13) 이와 관련하여 우석균(2010, 116)은 볼라노가 네루다의 참여시와 상아탑에 갇힌 듯한 빠스의 형이상학적 시를 비판함과 동시에 대가들을 모방할 뿐 독창성을 추구하는 시인이 사라지고 절대적인 문학권력 때문에 새로운 실험정신이 문단에 발을 들여놓기 힘든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볼라노는 당시 옥파비오 빠스의 영향력에 대해 “당시 시인들은 그의 클론처럼 글을 썼다”(Braithwaite, 64)라고 회고한 바 있다.

양자의 대립적 배치는 멕시코 내에서 작동하는 중심-주변의 모델에 대한 정치한 반영이다. 따라서 벨라노와 리마가 내장사실주의의 원류인 피나헤로의 영토(소노라)를 향해 떠나는 것은 빠스의 중심부 영토에 대한 대안적 기획에 대한 모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과 대안적 문화를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볼라노 문학에서 문학계가 근대세계의 축소판으로 제시된다는 사실과 볼라노가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1968년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가 군경에 짓밟힐 때 화장실에 숨어 문학을 통해 목숨을 부지하는 아옥실리오 라쿠투레(Auxilio Lacouture)¹⁴⁾라는 인물로 문학과 생명을 동일시한다는 점(이경민 2012, 41)을 고려하면, 그들의 기획은 대안적 삶 혹은 서구 근대성/식민성 밖의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기되는 문제는 그 대안적 삶의 가능성 여부이다. 그에 대한 볼라노의 전망이 낙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피나헤로가 벨라노와 리마에 의해 발견되자마자 죽음을 맞음으로써 이상적 대안이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심-주변의 모델이 멕시코라는 국민국가 경계 내에선 어디에서든지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중심부-메트로폴리탄이든 주변부-소노라 사막이든 지역적 차이를 불문하고 중심의 헤게모니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작품의 1부와 3부의 서술자인 가르시아 마데로는 멕시코시티라는 근대 도시의 공간 배치를 다음과 같이 그려낸다.

사실 나는 우리가막 지나온 거리가 특별하다는 징후를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 하지만 이내 [...] 몇 가지 차이점을 알아차렸다. 먼저 조명이야. 부카렐리가(街)의 조명은 백색이지만 게레로가(街)는 호박색에 가까웠다. 부카렐리가에는 길가에 주차한 차를 보기 어려웠지만 게레로가에는 많았다. 부카렐리가의 바와 카페들은 문이 열려 있고 밝았지만 게레로가에는 바와 카페가 많은 데도 길 쪽으로 난 창이 없어서 비밀스럽게 혹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숨기는 것 같았다. 끝으로 음악이 달랐다. 부카렐리가에는 음악 소리는 없고 차량

14) 『야만스러운 탐정들』과 『부적』에 등장하는 아옥실리오는 1968년 군경이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를 점령했을 때 대학 화장실에 숨어 생존한 우루파이 여성 알시라(Alcira Soust Scaffo)의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 사람 소리뿐이었지만, 게레로가는 [...] 음악이 거리의 주인이었다.(44)

식민시대의 잔재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듯 누에바에스빠냐(Nueva España)의 부왕의 이름을 딴 부카렐리(Bucareli)가는 근대화를 통해 백색(빛)-질서-개방-안정성이 갖춰진 문명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반면, 게레로가는 황색(어둠)-무질서-폐쇄-불안정성을 띄는 공간으로 근대 사회에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주변부-야만성을 암시한다. 여기서 짚고 갈 문제는 상이한 두 공간이 하나의 공간에 있다는 점이나 두 공간의 차이보다는 두 공간이 맺고 있는 관계, 다시 말해 질서의 세계가 무질서의 세계를 통제, 지배하는 권력 메커니즘이다. 게레로가는 근대화된 도시 안에 위치한 주변부로서 창녀 루뻬(Lupe)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칼로 자신의 성기를 재는”(49), 즉 폭력적 남성성을 통해 여성성을 착취하는 포주 알베르토(Alberto)가 군림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는 “멕시코시티와 전 멕시코의 매춘망과 매춘조직을 통제”(97)하는 경찰과 결탁한 인물로 주변에 대한 중심 권력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매개적 존재이다. 이렇듯 블라뇨는 남근을 통제 권력의 상징으로 제시함으로써 식민시대에서 근대국가에 이르기까지 멕시코가 남근중심주의(phallocentrism) 권력의 지배를 통해 유지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주목할 점은 이 남근중심주의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집행되는 방식이다. 『야만스러운 탐정들』에서 블라뇨는 그 키워드를 폭력, 감시, 통제로 제시한다. 먼저, “성기의 크기”와 “칼의 크기가 똑 같은”(49), 즉 남근과 권력(폭력)을 동일시하는 알베르토가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입에 넣어 숨이 막히도록 하는 일화(50)가 있는데, 이는 멕시코에서 남성=권력=폭력이라는 등식이 성립됨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음으로 킴(Quim)이 증언하는 프락치 사건과 아육실리오가 증언하는 딸락떼롤꼬 사건은 국가 시스템 작동이 감시와 통제를 통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킴의 일화는 대학생들이 자주 찾던 카페에 드나들면서 학생들의 마스코트가 될 정도로 친분이 쌓인 어느 농아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날 킴은 그 농아를 낫선 바에서 다시 만나는데, 그가 농아가 아니라 완벽하게 말을 할 줄 아는 프락치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한다. 진실을 알게

된 낚은 그 농아를 “악마”(95)에 비유한다. 낚의 일화가 국가의 비밀스러운 통제 시스템에 대한 폭로라면 아우실리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군경의 대학 진압은 국가폭력을 수단으로 한 공포의 정치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무장군인들과 몇몇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체포된 학생과 교수들을 트럭에 밀어 넣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영화처럼 [...] 어두운 화면 속에 점점이 번드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미친놈들이나 잔뜩 공포에 질린 사람들 눈에나 보이는 장면 말이다. 그때 난 나에게 말했다. 여기 있어, 아우실리오. [...] 네 발로 저 영화에 들어가지만, 아우실리오.(193)

교수와 학생이 트럭에 밀려들어가는 장면은 『부적』에서 아우실리오가 “시커먼 꽃병 주둥이”에 손을 밀어 넣으려는 장면과 중첩되는데, 여기서 꽃병 주둥이는 “지옥의 입구”, “악몽”으로 간주된다(Bolaño 1999, 16). 볼라노는 이런 방식으로 국가권력을 “악마”가 만든 “지옥” 혹은 “악몽”과 동일시한다. 결과적으로 낚과 아우실리오의 일화는 권력이 원칙적으로 그늘진 구역을 허용치 않으며 지속적이고 비밀스럽게 어디서든지 통제하고 있음(Foucault 2009, 207)을 입증한다. 더불어 루뻬의 포주인 알베르토와 그와 결탁한 경찰이 멕시코시티를 버리고 소노라를 향해 탈주하는 자들(벨라노, 리마, 루뻬, 마테로)을 추적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멕시코시티와 마찬가지로 탈주의 공간인 소노라 또한 중심-주변이라는 계서구조에서 예외일 수 없다. 벨라노와 리마가 메트로폴리탄을 떠나 피나헤로의 흔적을 추적하며 들어선 소노라주(州)의 도시 산타테레사(Santa Teresa)¹⁵는 사막, 환영, 망각의 이미지가 중첩된 주변부 공간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곳에는 옥파비오 빠스의 도플갱어가 존재한다.

이곳 대학의 인문학부 수장이 보자고 했다는데, 오라시오 게라라는 이름의 얼굴이로, 놀랍게도 그는 옥파비오 빠스와 똑같았다. 물론 축소판으로 말이

15) 산타테레사의 실제 모델이 되는 도시는 멕시코 북부의 시우다드 후아레스(Ciudad Juárez)이다. 실제로 여성 연쇄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 도시를 볼라노는 “지옥”(Braithwaite, 69)에 비유한 바 있다.

다. [...] 두 사람[벨라노와 리마]에 따르면 소노라주의 이 외진 곳에 있는 오라시오 게라의 추종자들은 옥파비오 빠스 추종자들을 그대로 빼닮은 복사판이라고 한다.(569-571)

위 인용문은 중심이라는 수렴점이 ‘평화(Paz)’의 시대를 구가하는 옥파비오의 전방위적 권력이 “문화적 황무지”(460)인 주변부 소노라에서도 작동함을 지시한다. 여기서 볼라노는 오라시오 게라(Horacio Guerra)-호라티우스(Horatius)와 옥파비오(Octavio)-옥타비아누스(Octavianus)를 통해 고대 서구에서 현대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지구적 역사가 권력 투쟁의 장이었음을 표출한다. 다시 말해, 브루투스(Brutus) 진영에서 옥타비아누스에 대적해 전쟁(Guerra)을 벌였다가 패배한 뒤 옥타비아누스 휘하에 들어간 오라시오(호라티우스)를 암시함으로써 서구 역사가 폭력을 통한 정복과 패권주의의 연속이며, 이러한 권력-중심의 생성 메커니즘이 현재까지 유효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옥파비오 빠스의 영토에 대항하고자 하는 내장사실주의는 서구 근대성이 멕시코(라틴아메리카)에 이식됨으로써 형성된 문화적, 지정학적, 사회적 중심에서 탈주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내장사실주의자들이 아버지가 없는 “숙명적인 고아”(177)로 그려지면서 남성성을 거부하고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그것이다.¹⁶⁾ 그들에게 내장사실주의의 창시자인 피나헤로라는 인물은 근대성의 서사와 논리들, 중심과 주변, 발전과 저발전, 문명과 야만의 구도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획의 근거가 된다. 그런 점에서 피나헤로와 70년대에 내장사실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그녀의 후계자들의 전위주의 운동은, 가르시아 칸끌리니가 지적하듯, 서구 근대성을 거부하고 모종의 대안을 찾아 근대성 외부를 향해 자발적으로 탈주를 감행한 하나의 움직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전위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을 극한까지 추구하고, 때로는 근대성의 다른 움직임들-특히 혁신과 민주화-과 결합하고자 했다. [...] 전위예술의 집단적, 개인

16) 벨라노와 리마가 남성성(부성)을 부정하고 피나헤로-여성성(모성)을 찾지만, 이들은 성(聖)을 거부하고 성(性)이 제거된 “무성(asexual)”(179)의 존재, 즉 특정 이데올로기나 헤게모니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의 인간으로 그려진다.

적 좌절은 근대 기획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한 절망적인 표현일 것이다. [...] 몇몇 전위예술들은 고급문화적이거나 근대적이기를 거부하는 시도로 나타났다. 19세기와 20세기의 다양한 예술가와 작가들은 서구의 예술 유산을 거부하고, 근대성과 유산의 결합물도 거부했다. 그들은 부르주아적 안락함과 합리성의 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산업과 도시의 발달 역시 그들에게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보였다. 가장 극단적인 예술은 그 거부를 망명으로 표출했다. “범죄” 사회, “황금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랭보는 아프리카로, 고갱은 타이티로 떠났다. 놀테는 남태평양과 일본으로, 샤갈은 브라질로 갔다. 보들레르처럼 남아 있는 사람들은 도시 생활의 “기계적인 타락”을 비난했다.(가르시아 칸플리니 1989, 42)

살바띠에라가 “절망했을 때를 위한 문학이 있는데, 이것이 리마와 벨라노가 하려고 했던 문학이다”(201)라고 밝히듯, 이들의 전위주의는 절망적 현실에 기인한다. 그 절망은 쿠바혁명이 1968년 에베르도 빠디야 사건으로 치명상을 입었고 프랑스 68운동의 혁명적 아우라가 멕시코에서 플라탈테롤코광장 학살로 추락했으며 1973년 아옌데 정부가 피노체트의 쿠데타로 막을 내렸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볼라노가 그러했듯이, 1974년 아옌데의 몰락을 목격하고 우여곡절 끝에 멕시코로 돌아온 벨라노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닌 “지옥에서 돌아온 단테”(196)로 그려지는 것은 지옥이 된 현실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¹⁷⁾ 결국 혁명은 공명(空名)으로 전락하고, 대신에 세속적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폭력과 감시를 통한 통제적 국가체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은 탈주이다. 따라서 내장사실주의자들의 주변부로의 ‘망명’은 이식된 근대 기획에 대한 반역적 거부의 표현이자 근대성 외부로 향한 욕망의 표출이라 하겠다.

4. 내장사실주의, 근대성 외부로 향한 가능성으로서의 기획

『야만스러운 탐정들』에는 ‘근대성(modernidad)’이라는 용어가 고작 세 번밖

17) 볼라노는 칠레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1968년에는 플라탈테롤코 학살을, 아옌데를 지지하기 위해 칠레로 돌아간 1973년에는 아옌데의 몰락을 목격했다.

에 쓰이지 않지만 이 용어는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적 개념으로 작동한다. 피나헤로가 주창한 내장사실주의, 그리고 그녀의 텍스트와 삶을 추종하는 70년대 후기 내장사실주의자의 탈주의 지점이 서구 근대성이기 때문이다. 1920년대 살바띠에라가 반골주의와 디에고 까르바할 장군을 떠나기로 결정한 피나헤로와 나는 대화의 내용은 피나헤로의 소노라 행이 반골주의가 지향하는 근대성을 벗어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장군[디에고 까르바할]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몸도 영혼도 반골주의자야. 우리를 도와 에스뜨리덴포뿔리스[반골주의 도시]를 만들어야지. 그러자 세사레아는 아주 재미있긴 하지만 이미 아는 농담이라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직장을 그만뒀으며 자신은 내장사실주의자이지 한 번도 반골주의자였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나도 마찬가지야. 모든 멕시코 시인은 반골주의자라기보다는 내장사실주의자야. 하지만 뭐가 중요하겠어. 반골주의와 내장사실주의는 우리가 정말로 이르고자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두 개의 가면일 뿐인데. 세사레아가 물었다. 우리가 어디에 이르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말했다. 근대성, 그 빌어먹을 근대성에 이르고 싶은 거잖아.(460)

근대성 기획을 에스뜨리덴포뿔리스라는 상징으로 투사하는 살바띠에라는 피나헤로를 반골주의자로 간주하며 그 기획에 함께할 것을 청한다. 그러나 피나헤로의 인식과 기획은 반골주의 기획과 다르다. 살바띠에라는 양자가 공히 “근대성”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모든 멕시코 시인이 내장사실주의자에 가깝다는 것으로 피나헤로의 기획이 서구중심적 근대성을 지향하지도 중심을 재구축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주변부(인)를 향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즉, 피나헤로의 기획은 근대화=서구화라는 등식을 파괴하는 인식론적 차이에서 출발하며, 따라서 엘리트층이 전유하는 권력과 지식의 식민성 외부에서 실행될 기획이다.

그러므로 피나헤로가 중심-메트로폴리탄을 벗어나 (생명의 가능성이 없기에 태어나는 생명이 모두 최초일 수 있는 공간의 메타포로서의) 사막 지대인 소노라로 향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잉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장이 된다. 반면에 근대세계는 제 경계 외부로 탈주하는 피나헤로를 포착할 수 없다. 살바띠에

라가 멕시코시티를 떠나기로 결정한 피나헤로를 보고 “세사레아는 환영 (fantasma)처럼, 보이지 않는 여자처럼 웃었다”(460)거나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던 예의 그 세사레아가 아니라 다른 여자, 소노라 사막의 태양 아래 검은 옷을 입은 뚱뚱한 인디오였다”(461)라고 하는 이유는 피나헤로가 살바피에라의 인식론적 경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살바피에라에게 소노라는 “문화적 황무지”(460), 즉 근대성 외부의 공간인 것이다. 이로써 피나헤로는 근대세계에 포섭된 멕시코시티의 피나헤로가 아니라 ‘환영-투명인간-사막-인디오’, 즉 ‘역사 없는 사람들’ 혹은 프란츠 파농의 표현처럼 ‘대지의 저주받은 자들’의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피나헤로의 영토에 들어선 후기 내장사실주의자 “벨라노와 리마가 두 명의 환영”(113)으로 그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¹⁸⁾

그렇다면 근대성을 벗어나려는 피나헤로의 또 다른 ‘근대 기획’은 무엇인가. 사실 작품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피나헤로의 기획이 몇 가지 중첩된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피나헤로의 연인이던 아베야네다의 일화에 나오는 ‘아스플란(Aztlán)’과 벨라노와 리마가 피나헤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만난 피나헤로의 옛 동료교사가 들려주는 ‘히파티아(Hipatia)’ 이야기가 그것이다.

아베야네다는 아스플란 얘기를 꺼냈다. [...] 오르피스 빠체꼬는 아스플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그래서 아베야네다가 처음부터 다 설명해줘야 했다. 최초의 멕시코인들의 신성한 도시, 신화적 도시, 알려지지 않은 도시, 플라톤이 말하는 진정한 아틀란티스인 아스플란에 대해서. [...] 오르피스 빠체꼬는 그 정신 나간 생각들이 틀림없이 세사레아탓이라고 생각했다.(580)

언젠가 교사가 무엇을 쓰냐고 물었더니, 세사레아가 대답하기를 어느 그리스 여자에 대해 쓴다는 것이었다. 그리스 여자의 이름은 히파티아였다. 얼마 후 교사는 백과사전에서 그 이름을 찾았고,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로 서기 415년 기독교도들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 교사는 세사레아가 자신

18) 주변부인의 환영적 이미지는 『부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멕시코시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아욱실리오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여자(muje invisible)”(190)라고 말한다.

을 히파티아와 동일시한다고 여겼다.(594)

아스플란이 멕시코의 신화적 원류이면서도 망각 속에 침잠한 도시라면 히파티아는 서구 역사를 지배한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희생된 인물로서, 양자는 상실된 기억으로서의 존재 근원이 되는 과거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거된 ‘여성’이라는 중첩된 이미지를 생산한다. 즉, 주변부에서 꿈꾼 피나헤로의 기획은 유럽에 의해 인식·명명되기 이전의 멕시코로서의 존재 근원과 가치를 복원하고 서구의 남근중심주의가 잉태한 식민주의 이전의 ‘비식민 · 비폭력 · 여성적’ 인문주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나헤로의 ‘또 다른’ 근대성 기획은 실현 불가능한 미완의 조잡한 그라피티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가 남긴 노트-텍스트는 그녀가 에스프리덴또폴리스와는 차별적인 모종의 이상적 ‘폴리스(polis)’를 기획하고 있으나 그 기획이 미완성임을 보여준다. 피나헤로의 옛 동료 교사는 다음과 같이 피나헤로의 노트를 기억한다.

교사의 눈은 통조림 공장 지도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건 세사레아가 그린 지도였는데, 어떤 구역은 미세한 점까지 아주 신경을 썼고 어떤 데는 의미하거나 모호했으며, 가장자리에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공장 지도를 그렸는지 물었다. 세사레아는 다가올 시대에 대해 말했다. [...] 세사레아는 연도를 꼭 찍어서 2600년경이라고 말했다. [...] 기본적으로 멕시코 교육체계에 대한 논평이었어요. 대단히 양식 있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상식 밖인 것도 있었죠. 세사레아는 바스콘셀로스를 증오했지만, 어찌 보면 애증이었죠. 노트에는 대규모 문맹 퇴치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 원고가 엉망이라서 교사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순차적으로 읽을 도서 목록들도 있었는데, 앞뒤가 아예 맞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서로 모순적이긴 했다.(596-597)

피나헤로가 바스콘셀로스를 증오했다는 것은 반골주의가 주창한 에스프리덴또폴리스의 개념이 그러하듯, 다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인종주의 우생학을 전개하면서 메스피소를 보편인종으로 규정하고 그 문화적, 혈통적 중심을 유럽(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찾고 있는 바스콘셀로스의 인식 또한 유럽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바스콘셀로스의 메스피소 민족

주의 이데올로기는 유럽중심적 근대성에 근거하여 멕시코를 세계주의적 보편성에 기입하고자하는 열망의 표현이다. 따라서 피나헤로의 기획은 바스콘셀로스의 그것과는 상이한 어떤 기획이지만 그 실현 방법과 시기를 제시할 수 없는 미지의 기획이다.

그런 점에서 피나헤로의 죽음은 의미심장하다. 사실, 옥파비오 빠스로 상징되는 (근대적) 영토성을 피나헤로의 (주변부적) 영토성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서구 근대성의 식민주의 논리가 동일하게 재생산된 주변부 내의 권력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다시 말해, 후기 내장사실주의자들이 세사레아 피나헤로의 시학을 부활, 복원하는 것으로 옥파비오 빠스의 (공식) 문화 영토를 대체하는 것은 권력 메커니즘 내에서의 위치 전복만 있을 뿐 그 구조를 중단하거나 제거할 수 없으며 또 다른 (문학)권력 매트릭스를 재생산하는 모순적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체제 내에서 “식민주의 논리”가 늘 동일했고, “다만 권력의 주체가 바뀌었을 뿐”(미놀로 2010, 43-44)이듯, 주변부 국가 내에 형성된 내적 식민주의 논리 또한 동일하게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따름인 것이다. 따라서 피나헤로가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행위는 권력 체계 모니 생성의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식민주의 논리와 근대성의 권력 메커니즘에서 이탈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이 생명-텍스트를 구원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리마가 경찰의 손에 붙들려 뒤엉키자 피나헤로는 “땀박질이 거의 불가능한 몸으로 뛰어가” 자신의 “육중한 몸으로 두 사람을 덮쳐”(604) 리마를 구하고 죽음을 맞는다.¹⁹⁾ 이로써 피나헤라의 주변부 삶-텍스트와 그녀가 구상한 모종의 기획은 후기 내장사실주의자에게 전이

19) 피나헤로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벨라노와 리마가 그녀를 찾게 되는 순간 “시적인 모습이라고는 찾을 수 없으며” 그녀의 이름(Tinajero-Tinaja, 향아리)에서 알 수 있듯이 “바위 혹은 코끼리” 같은 몸집에 “영덩이는 거대하고 두 팔은 떡갈나무 통나무 같은” 인물로 그려지면서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로 추락한다.(Zozaya 2009, 11-13) 피나헤로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경민은 “문학권력을 전 부모세대가 후속세대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2013, 39)하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 기성세대 작가들을 극복하고자 한 볼라노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라 하겠다.

된다. 작품 전체에서 벨라노와 리마가 중심인물이면서도 그들이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피나헤로가 그러했듯이 그들이 텍스트로서의 세계 속에 침잠해있는 ‘역사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는 포착되지 않는 시공간에서 계속될 것이다. 볼라노는 주변부가 끊임없이 주변부의 역사를 중심부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넌지시 제시한다. 피나헤로의 옛 동료 교사는 주변부의 생명력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빠빠고족은 애리조나와 소노라에 산다. 우리는 교사에게 빠빠고족인지 물었다. 교사가 말한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과야마스족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요 인디오였죠. 우리는 왜 빠빠고어를 가르치냐고 묻는다. 교사가 말한다. 이 언어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멕시코에는 빠빠고족이 2백 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정한다. 아주 적죠. 애리조나에는 1만 6천 명가량 있는데, 멕시코에는 2백 명뿐이라니. 그러면 엘 꾸보에는 빠빠고족이 얼마나 남아있죠? 교사가 말한다. 20명가량이에요.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계속 가르칠 거예요. 덧붙여 교사는 빠빠고족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오탐이라고 부르고, 빠마족은 스스로를 오옉, 세리족은 끈까악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588-589)

위 인용문은 서구의 근대 국가 모델과 권력 체계모니에 의해 라틴아메리카의 지정학적 경계가 설정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의 고유한 지리문화적, 인종적, 역사적 정체성이 제단, 분할, 파괴됐다는 사실, 즉 서구의 근대성/식민성이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을 규정하는”(59)방식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서구의 글로벌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주변부가 서구의 인식론적 척도의 대상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 또한 입증하고 있다. 그들에게 삶에 대한 지정학적 경계 설정은

20) 흥미롭게도 피나헤로의 죽음 이후는 『야만스러운 탐정들』의 2부 <야만스러운 탐정들(1976-1996)>에 해당하는데, 무한히 전개 가능한 다층적 크로노토프의 접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직선적, 규칙적, 시간성-서사성은 3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상실되고 2부에서는 다양한 시공간이 중층적으로 겹치며 혼돈의 서사를 생성한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질서의 텍스트에서 경계 없는 무질서의 텍스트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볼라노의 서사 전략이다.

폐쇄적이고 부패이며 죽음이다. 소노라의 사막에 사는 이들은 가축과 함께 살아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유리창 없는 창으로 들어오는 사막의 바람이 냄새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589). 사막에는 길(삶)의 원형이 없다. 끊임없이 길(삶)들이 생성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곳이 사막이기 때문이다. 피나헤로가 죽음을 맞고 2부에서 벨라노와 리마가 각자의 길을 찾으며 죽음을 향해가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그들이 ‘야만스러운 탐정들’인 이유 또한 근대성의 서사가 제시하는 질서와 규율, 진보와 발전의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한 지점을 바라보며 미지의 곳을 향해 똑바로 뒷걸음질 치며 그 지점에서 멀어져간다”(17)는 것은 세계를 지배하는 중심적 가치를 벗어나 새로운 의미생성이 가능한 외부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따라서 그들의 역사, 즉 서구 근대성이 양산한 주변부의 상실된 이야기를 회복하는 것은 근대성 이면의 텍스트를 쓰는 것이며 ‘또 다른’ 근대성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일이자 서구 근대성의 필연적 그림자인 식민성의 관점에서 역사를 재인식하는 행위이다. 내장사실주의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그들에 대한 텍스트를 출판하게 된 빠추까 대학의 에르네스토(Ernesto)는 자신의 책이 “최소한 빠추까에 근대성을 도입하게 될 것”(551)이라고 말한다. 그는 버려진 서사를 회복하는 것으로 다른 방식의 삶-텍스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한다. 그러나 피나헤로의 기획처럼 그의 텍스트가 주변부의 삶-텍스트를 포착할 수 없는 미완성임은 자명하다. 근대적 삶-텍스트로는 그들을 포착할 수 없으며 그들이 포착된다는 것은 특정한 인식론적, 지정학적 경계 내에서 규정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벨라노와 리마의 목소리가 완전히 제거되고 산발적인 이동과 무수한 레퍼런스 속에 침잠함으로써 『야만스러운 탐정들』이 그들의 삶을 포착하지 못하는 이유도 동일한 맥락이다. 그러한 바, 볼라노는 이 작품을

21) 이와 관련하여 작품에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리마가 샤워를 하면서 책을 읽는 비상식적 행위이다(실제로 빠빠스끼아로가 샤워 중에 독서를 했다고 한다). 이는 사물이 지닌 정형화된 의미 체계를 “의미[또는 느낌]를 상실할 때까지”(189) 극한으로 밀어붙이고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생성의 가능성을 열고자하는 볼라노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해 또 다른 삶의 실현 가능성을 탐험할 뿐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구 근대성으로 획일화된 세계에 포착되지 않는 (불확정적) 가능성으로서의 주변부 삶-텍스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5. 나가며

볼라노가 라틴아메리카의 주변부에 천착하는 이유는 서구의 서사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적, 정치사회적 지형도를 재단하는 척도이자 모방의 모델로 작용했다는 인식, 다시 말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아만스러운 탐정들』에는 그러한 전제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으니, 멕시코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는 아마누엔세 아스떼까(Amanuense Azteca) 목욕탕에 그려진 벽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볼라노는 세계체제 내에서 멕시코가 언제나 외부에 의한 식민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무명의 예술가가, 생각에 잠겨 종이엔가 양피지엔가 글을 쓰는 인디오를 그려놓았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인디오가 아스떼까의 필사자[아마누엔세 아스떼까 목욕탕]였다. 필사자 뒤에는 온천이 몇 개 있었는데, [...] 인디오와 정복자들, 식민시대 멕시코인들, 이달고 신부와 모렐로스, 막시밀리아노 황제와 까를로타 황비, 우군과 적군에 둘러싸인 베니토 후아레스, 마테로 대통령, 까란사, 사빠파, 오브레곤, 각양각색의 군복 혹은 그냥 옷을 입은 병사들, 농민, 멕시코시티 노동자들, [...] 영화배우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 나는 벽화 양 가장자리에 온천탕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이 그려져 있는 것도 발견했다. 그리고 담장 너머의 평원 혹은 잔잔한 바다 같은 곳에 동물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동물들의 환영(아니면 식물들의 환영) 같았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도 정적이 감도는 곳에서 숫자를 늘려가며 담장 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119)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의 벽화인 <멕시코의 역사: 정복에서 미래까지 La historia de México: de la conquista al futuro>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위 인용문은 식민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멕시코 역사를 파노라마로 펼쳐 보인다. 여기서 돌담이 멕시코의 영토 경계를 의미한다면, 돌담 밖의 존재들은 멕시코 영토 침범을 노리는 외세를 포괄적으로 지시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 외부의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의 환영, 즉 야만적/비인간적 이미지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볼라뇨는 역사적으로 문명의 침병이자 척도로 제시되었던 서구(를 포함한 제국주의적 세력)를 라틴아메리카를 탐하는 야만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문명-야만, 발전-저발전의 코드를 전복하고 서구의 근대성 논리를 해체한다. 더더욱 주목할 점은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인물이 “인디오” 혈통의 “아스떼까의 필사자”라는 것인데, 이는 멕시코 역사의 기원을 아스떼까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인디오를 멕시코 역사의 주인공으로 상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그를 텍스트-지식 생산의 주체에 위치시킨다는 것, 다시 말해 인식적 위치를 멕시코-원주민으로 수정한다는 것은 주변부의 지식 생산 가능성을 부정하는 서구중심주의 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역전은 서구(와 서구가 생산한 거대서사)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병폐를 조장한 식민적 야만임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듯 서구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출발한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1920년대에 사라진 시학을 찾는 후기 내장사실주의자 벨라노와 리마의 방랑을 그린 모험소설에 머물지 않고 문화적 주변부 인물인 그들을 매개로 멕시코에 이식된 근대성의 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볼라뇨는 멕시코에서 작동하는 지식과 권력의 사회사적 메커니즘을 파헤치며 근대성 논리를 모방함으로써 구축된 멕시코 사회의 내적 주변부(인)의 존재와 역사를 수면 위로 드러낸다. 즉, 지식-권력의 중심이 포착할 수 없는(또한 포착할 필요가 없는) 주변부(인)의 삶과 역사를 조망하면서 주변부에도 모종의 기획, 그 기획이 “2600년경”(596)에나 가능할 미완성의 불확실한 기획 혹은 ‘혁명’이라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구상되고 있음을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따라서 볼라뇨의 『야만스러운 탐정들』은 『2666』, 『부적』을 비롯해 여러 작품에서 확인되듯, 주변부의 환영적 존재들을 현실의 주체적 존재로 소환함으로써 근대성의 야만적 본성을 폭로하고 주변부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볼라뇨의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의 외부 혹은 근대성의 외부가 존재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혹은 그 외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

부를 생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탈주를 시도해야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물론 볼라노의 문학세계는 “세상은 살아 있는데,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구제책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다”(Braithwaite, 71)라고 밝힐 만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염세적이고 묵시록적인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볼라노의 문학은 인간 세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관적이고 세기말적인 경고에 머물지 않는다. 그가 소설의 죽음과 문학 고갈의 시대에 문학을 삶과 동일시하며 죽음의 순간까지 문학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은 근대성이 구성한 견고하고 폐쇄적인 현실에 대한 절망의 허망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인식이 현실을, 즉 “권태의 사막”(Bolaño 2003, 152)을 탈주하여 대안적 텍스트-삶을 찾는 여행자, “진정한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여행자”(Bolaño 2003, 150)가 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은중(2009), 「유럽중심적 근대성을 넘어서: 권력의 식민성과 경계 사유」, 이베로아메리카, Vol. 11, No. 1, pp. 1-38.
- 김현균(2010), 「『부적』: 광기의 시대와 구원으로서의 문학」, 비교문화연구, Vol. 21, pp. 32-52.
- 박구병(2005), 「멕시코혁명 및 혁명 후 체제에 대한 연구동향 변화-1980년대 말 이래 영·미학계의 연구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Vol. 54, pp. 73-102.
- 우석균(2010), 「문자도시의 몰락: 로베르토 볼라노의 『칠레의 밤』을 중심으로」, 스페인어문학, Vol. 54, pp. 107-125.
- 이경민(2012), 「유목적 글쓰기로서의 볼라노 문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3, No. 3, pp. 27-55.
- _____(2013), 「Del infrarrealismo al realismo visceral dentro del marco de la contracultura en *Los detectives salvajes* de Roberto Bolaño」, 국제문화연구, Vol. 6, No. 1, pp. 25-51.
- 미놀로, 월터(2010), 『라틴아메리카, 만들어진 대륙: 식민적 상처와 탈식민적 전환』, 김은중 옮김, 서울: 그린비.

- _____ (2013), 『로컬 히스토리/글로벌 디자인』, 이성훈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Bolaño, Roberto(1976), “Tres estridentistas en 1976”, *Plural*, núm. 62, pp. 49-60.
- _____ (1998), *Los detectives salvajes*, Barcelona: Anagrama.
- _____ (1999), *Amuleto*, Barcelona: Anagrama.
- _____ (2003), *El gaucho insufrible*, Barcelona: Anagrama.
- Braithwaite, Andrés(ed.)(2006), *Bolaño por sí mismo. Entrevistas escogidas*, Santiago: Univ. Diego Portales.
- Edwards, Jorge(1999), “Roberto Bolaño y Los detectives salvajes”, *Revista Lateral*, Vol. 52. <http://www.memoriachilenaparaciegos.cl/archivos2/pdfs/MC0025809.pdf>.
- Foucault, Michel(2009), *Vigilar y castigar: Nacimiento de la prisión*, 1ª. ed. francesa, 1975, Trad. Aurelio Garzón del Camino, México D.F.: Siglo XXI.
- García Canclini, Nestor(2009), *Culturas híbridas: Estrategias para entrar y salir de la modernidad*, 1989, México D.F.: Debolsillo.
- Kokaly Tapia, María Eugenia(2005), “Roberto Bolaño, la construcción desde la periferia”, Alejandra Bottinelli, Carolina Gainza y Juan Pablo Iglesias(eds.), *Dinámicas de exclusión e inclusión en América Latina, Hegemonía, resistencia e identidades*, Santiago: Universidad de Chile, pp. 253-267.
- Losada, Alejandro(1997), “La literatura urbana como praxis social en América latina”, David William Foster & Daniel Altamiranda(eds.), *Theoretical debates in spanish american literature*, NY & London: Garland Publishing, pp. 353-382.
- Paz, Octavio(2009), *El laberinto de la soledad*, Enrico Mario Santi(ed.), Madrid: Cátedra.
- Quijano, Aníbal(2003),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Edgardo Lander(comp.),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Buenos Aires: CLACSO, pp. 210-246.
- Rama, Angel(1984), *La ciudad letrada*, Hanover: Ediciones del Norte.
- Zozaya Becerra, Florencia G.(2009), “El desierto como utopía en *Los detectives salvajes* de Roberto Bolaño”, *Revista Casa del tiempo*, Vol. 16, pp. 11-15.

이 경 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menbal04@snu.ac.kr

논문투고일: 2014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2014년 8월 4일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11일

Los detectives salvajes: Criticizing Occidental Modernity by Configuring the Periphery

Kyeongm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yeongmin (2014), *Los detectives salvajes*: Criticizing Occidental Modernity by Configuring the Periphery.

Abstract It is clear that Roberto Bolaño, who has persistently dug into the evil of the contemporary world through his literary works such as *Estrella distante*, *Nocturno de Chile*, *2666*, etc., was aware of colonialism as a dark side of modernity. *Los detectives salvajes*, which presents the social pathology of the literary world by configuring the nomadic life and melancholic adventure of peripheral writers, “*realvisceralistas*” in the novel, possesses same critical consciousness. In that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how Bolaño problematizes the parasitic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ower and the society of intellectuals trapped, despite the postcolonial events of the Mexican Revolution, by the Eurocentrism of the 1920s, criticizes the subalternity of knowledge which generated and strengthened the centre-periphery model in Mexican society, and propounds the existence of other life-text as an uncertain possibility. This work also confirms that Bolaño suggests that the essential nature of occidental modernity is based on colonial barbarity.

Key words Coloniality, Knowledge, *Los detectives salvajes*, Modernity, Periphery, Power